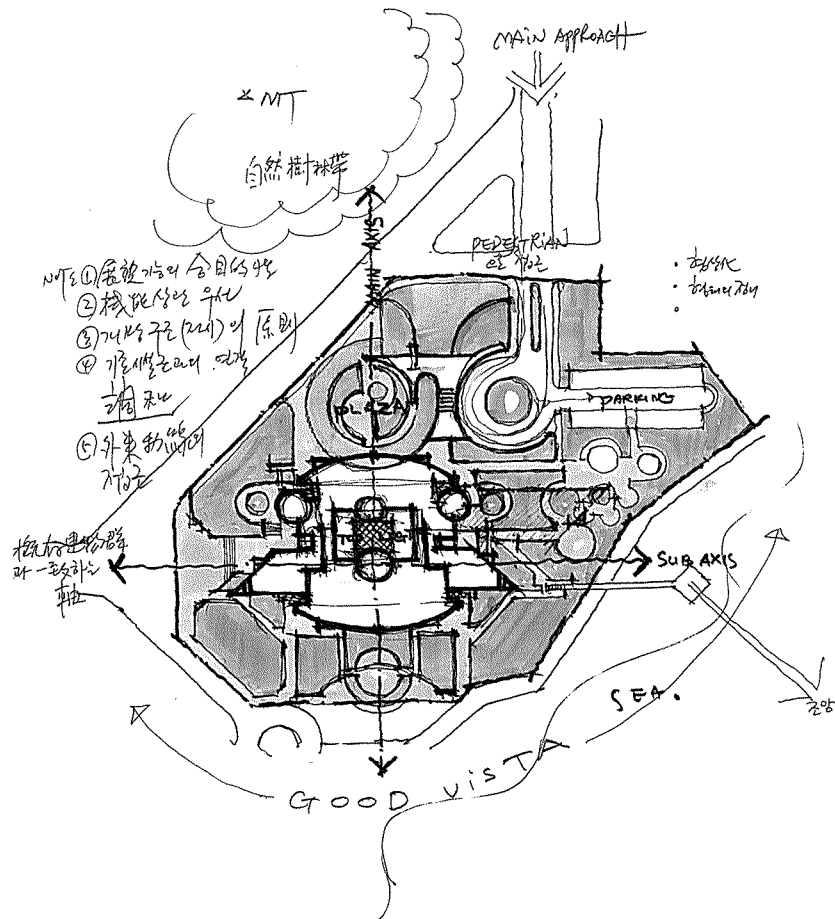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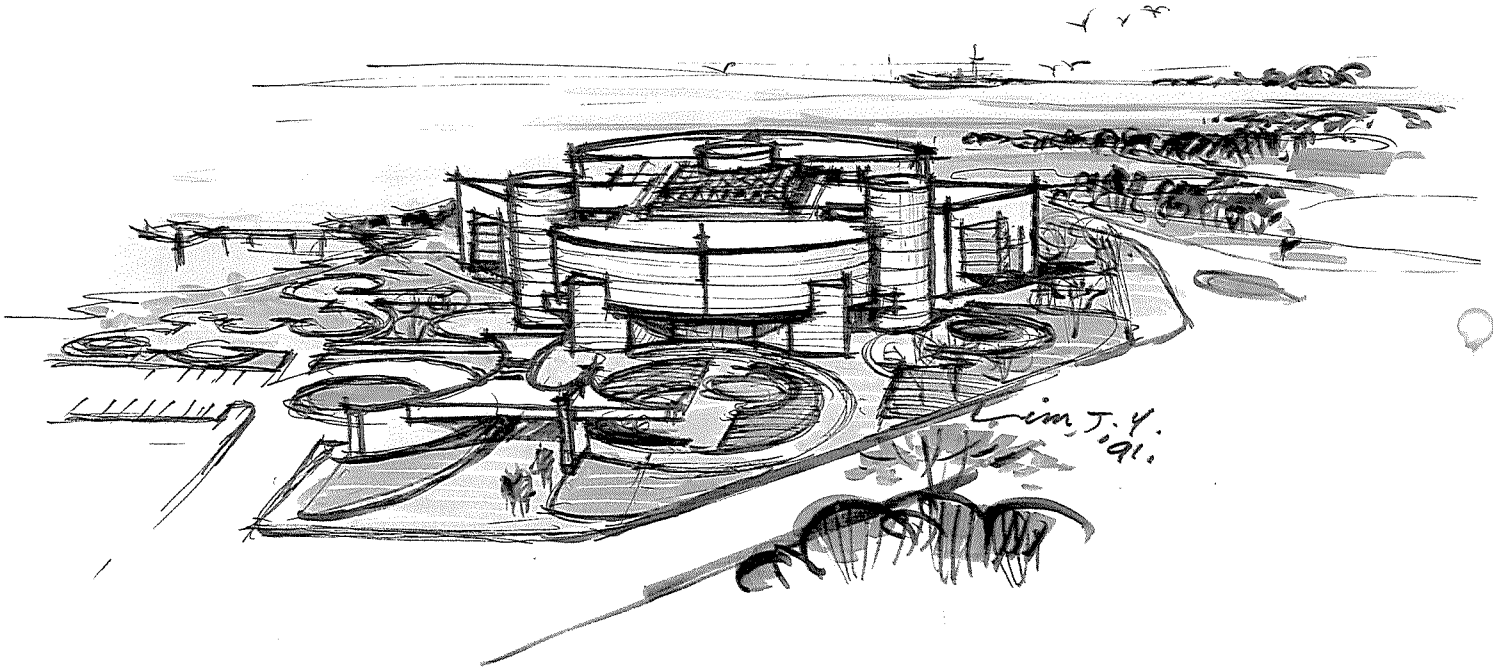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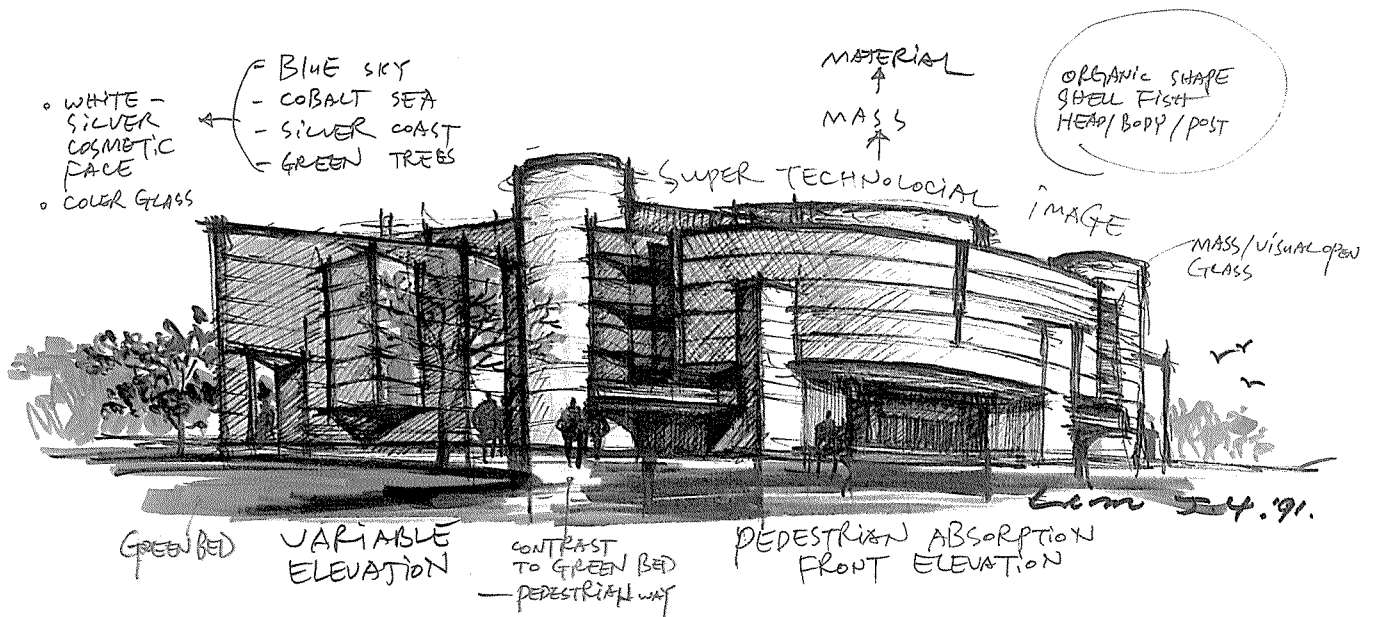


水産科學館 계획안



4의 스케치



산 내음, 물내음, 바닷내음-

게글게글 게딱지, 은빛모래랑 조개껍질.

모두 우리의 삶의 原初가 아니던가.

현상에 참여했던 過客의 아쉬움은 死産의 若痛을 치르는
産母보다 더한 아픔임에라!

훤이 훤이 화장시킨 내 새끼를 梁山앞바다에 눈물로 뿌린다.

林長烈 / 성립종합건축사사무소

